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1주일
2021. 06. 13. (나해) 제2272호

대구주보



새방골성당
아름다운 여백이다.
+ Bernard - 그림
2021

새방골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어제 17,22-24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2독서** 2코린 5,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4,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작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두류본당 주임 | 안병권 세례자 요한 신부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을 한다 해도 결국 그 안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담겨 있거나 숨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면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며,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균형이라는 중심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주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더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참 많은 미사 지향을 봅니다. 그 안에는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이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등 많은 분들에 대한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신앙인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상하게 작아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도 삶도 단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 드릴 것이 있겠나?'라고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기대를 하며 같이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만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을 위한 방패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거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며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필론**

히브리 산파들과 파라오의 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요셉이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 이집트의 재상까지 오른 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다. 성경은 이집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고 전한다(탈출 1,7).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두려웠고(탈출 1,12)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하게 다루는 데, 나아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소용된다(탈출 1,11-16). 그러나 생명을 받아내는 히브리 산파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다. 하느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두려웠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느님을 두려워했다. 파라오의 두려움은 하나의 민족을 제거하는 데 집중됐지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민족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

히브리 산파들의 말은 이랬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탈출 1,19). 파라오의 억압에 히브리 산파들은 또 다른 힘, 곧 히브리 여인들의 ‘힘’을 언급한다.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하예(חַיָּה)’로, 본디 뜻은 ‘살다’, 혹은 ‘보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다’라는 말로 이해된다. 히브리 여인들의 힘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 생명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을까. 파라오의 권력 앞에 히브리 여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건, 제 자식에 대한, 제 자식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 외에 무엇이 있었을까.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파라오의 현실 권력 앞에서 용감히 증언했고 그 증언은 두려워해야 할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억압은 질기고 모질었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하는 파라오. 그때, 레위의 딸, 익명의 한 여인이 잘 생긴 아이를 낳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남물래 키우는 게 더 이상 힘들었던 어느 날, 여인은 왕골 상자에 아기를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낸다. 누군가

살려주길 바라는 간절한 어미의 마음 역시 그 왕골 상자에 담겼으리라. 이 모든 걸 아기의 누이는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왕골 상자에 누어진 아기를 발견한다. 파라오의 딸은 그 아기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임을 바로 알아차린다. 파라오의 딸은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탈출 2,6). 우리말 번역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되어있는 히브리 동사 ‘하말(חַמַּל)’은 아끼고, 절약하는, 혹은 인정을 베푸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아기가 파라오의 딸에겐 살리고 키우고 아껴야 하는 고귀한 생명으로 비쳐진 것이다.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감정은 민족의 문제도, 권력의 문제도, 그 권력에 기생하는 계급의 문제도 아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파라오의 딸,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다.

우리는 안다. 아기의 누이는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 젖을 물려 키워줄 유모를 소개했고, 그 유모가 바로 아기의 친모라는 사실을. 파라오의 억압 속에,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녔던 여인들의 용맹함 속에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자라났다. 히브리 산파와 모세의 누이, 심지어 파라오의 딸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넘어선, 황제의 명령을 넘어선 용기를 통해 모세는 살았다. 죽음의 명령에 저항한 여인들의 도움으로 모세는 장차 히브리 민족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

교황, 교회 형벌 제재 개정 “교정 없이 자비 없다”

2021년 6월 1일 바티칸 뉴스 | 번역 박수현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1베드 5,2)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Pascite Gregem Dei)는 복음 말씀을 이같이 인용하며 서문을 시작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교황령을 통해 ‘교회 안의 형벌 제재’에 관한 교회법 제6권을 개정했다. 교황청 공보실이 6월 1일 발표한 새로운 교회법 조항들은 오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

“전 세계 교회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지난 1983년 1월 25일 공표하신 교회법전 중 형벌 제재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목자들이 보다 신속한 구제 및 교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더 심각한 악을 피하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목적 자비와 함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07년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전 세계의 교회법 전문가들과 각국 주교회의, 수도회 장상들과 교황청의 여러 부서들과 함께 “단체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집약적이고 복잡한 그 작업은 지난 2020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고 주교들의 법규 준수를 책임지는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을 교회에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비와 연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때때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때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황은 “사목자와 어떤 식으로도 분리

될 수 없는 임무”라며, “교회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구체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자비의 요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교회의 자비와 교정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가 행사하는 자비 그리고 언제나 여러 정황과 정의를 요구되는 형벌의 활용 사이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황은 이것이 (범죄인의) 교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사고방식이라며, “많은 경우 신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문들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벌 제도를 사용하는 데 소홀한 사목자는 자신의 임무를 의롭고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비는 사목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목적, 곧 정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 그리고 추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만큼 형벌 제도를 활용할 때 요구됩니다.”

교황은 “새로운 조항이 현행법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일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제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방어권과 형사 기소 시효 그리고 보다 정확한 형벌 결정과 같은 형법의 기본 측면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사회에 더 큰 피해와 추문들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적용에 있어서 교회 일치를 증진하도록 관할권자 측의 재량권을 줄이고 특정 경우 더 적절한 제재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황령은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공포됐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1756년 전주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유향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전라도 지역 최초의 신자가 된 것이다.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아들이고, 그 다음해에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는 그의 며느리, 유중성 마태오는 그의 조카이다.

아우구스티노에게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권일신의 집에서 주요 교리를 배우는 동안 이를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뒤 고향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가족과 친척은 물론 그의 집에 있던 종들도 모두 그의 전교 대상이 되었다. 이제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가난한 이웃은 물론 자신의 종들에게도 애공과 희사를 베풀었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여 지방 순회에 나서게 되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 전주 아우구스티노의 집을 방문하여 인근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이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선교사를 태운 서양 선박을 조선에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우구스티노가 앞장서서 이 계획을 도왔고 그러던 차에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유향검 아우구스티노는 전라도 교회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가장 일찍 체포되었다. 이어 그는 전주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며, 포도청과 형조, 의금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박해자들은 선교사와 서양 선박 요청 계획의 주동자로 아우구스티노를 지목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던 그는 결코 신자들을 밀고하거나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결국 아우구스티노로부터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은 그에게 모반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참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아우구스티노는 전주로 옮겨져 10월 24일(음력 9월 17일) 남문 밖에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성 다블뤼(St. A. Daveluy, 安敦伊) 주교는 훗날 그가 배교한 것 같다는 추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유향검 아우구스티노
(1756 ~ 1801년)

“유향검이 배교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부정되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순교자들의 팔마가지를 받으리라 믿는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금은 백신 비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12.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③

우리는 혼인을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완성의 역동적 길로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믿는 이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응답하며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자신만의 식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지속적인 가족 관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오늘 날에도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증언이 존중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긍정적이고 환대하는 사목적 접근법에 힘을 보태어 주며, 부부들이 복음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37-38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매주 다른 실천 사항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하기 (전통시장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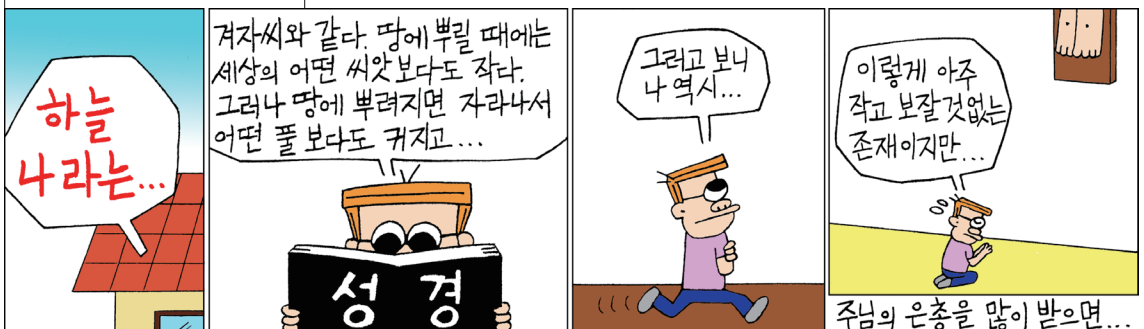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22호 정답

1. 요압, 브나야, 에브야타르
2.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와 명예
3. ③
4. ④

겨자씨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9일(토)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19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19(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성소자

개별 만남 및 상담

대상: 국내의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10명 이내 / 연중가능

산내 치유 피정: 6.15(화)~16(수)

문의: (054)382-0091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일시: 6.17(목)~20(일) / 6.24(목)~27(일)

장소: 성모솔숲마을(청도)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묵주 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 11:00~16: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문의: (010)9045-0191

피정 _ 하느님의 작품인 나를 찾아

일시: 6.20(일) 13:30~17: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분원

(삼덕성당 옆) / 회비: 5천원

대상: 청년남녀 누구나

문의: (010)5139-1984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피정

일시: 6.27(일) 10:00~17: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35세 미만 여성 / 회비: 5천원

주최: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문의: (010)4096-5973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가족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서준영(라파엘) 신부, 650-3529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화상영어 상시 모집중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검정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TOULU EXPRESS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하지정맥류인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메크)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후자)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 전문의. 216-7345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 ↔ 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김인혜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구병영

효성병원 맞은편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창수(요한) 몬시뇰
2009년 6월 14일
- 간홍모(마오로시오) 신부
1918년 6월 16일
- 서형석(프란치스코) 신부
1941년 6월 17일
- 최명화(베드로) 신부
1975년 6월 17일

교육 | 모집

7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7.11(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마감: 7.1(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설명회: 7.3(토) 14:00
여름진학캠프: 8.7(토)~8(일)
대상: 현재 초6~중1
문의: (054)338-0530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교양)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스마트팜 교육 / 실무과정

문의: 660-5554~6
https://conedu.cu.ac.kr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문인화, 칼럼바,
성가반주오르간,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룻,
우쿨렐레, 피아노, 발성법, 연필초상화,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7차: 7.23(금)~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 직원 채용
분야: 생활지도원, 조리원,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등
문의: 253-9991(내선 3번)
http://www.caritasdaegu.or.kr

성요셉복지재단 종사자 채용

직종: 생활재활교사, 조리원
자격: 관련 업무 자격소지자(60세 미만)
문의: (054)954-4176
http://josephtown.or.kr

SOS프란치스카의집 직원 채용

분야: 영양보호사 1명, 위생원 1명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SOS프란치스카의집,

986-2077

http://sos-silver.or.kr

대구가톨릭요양원 영양보호사 채용

2018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http://www.tcmcch.co.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만수 주신다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남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마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 (크리스티나)

WHISEN 서스텀에어컨

영화공조시스템

시스템에어컨 판매 및 설치

아파트(입주, 이사, 거주 가능)
전원주택, 상가 천장형에어컨

010-8857-6781 johnsk@hanmail.net
대표 김 광 수(세례자요한)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환분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